

설 그리고 시간



조 동 수 위원
광주중재부(전 광주일보 주필)

‘설’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찾아봤더니 대충 다섯 가지였다. ① ‘삼가다’는 의미. 앞으로 1년간 무사하도록 조심하고 기원하는 뜻이 담겨있다. ② ‘섣다’는 의미. 나이가 들어가니 서글퍼진다는 뜻이다. ③ ‘낯설다’는 의미. 새로 열리는 미래에 대해 익숙하지 않다는 뜻을 내포한다. ④ ‘서다’는 의미. 새해를 새로 세운다는 데서 연유했다. ⑤ ‘해’나 ‘나이’를 지칭하는 고어(古語)다.

모두 시간과 관련이 깊은데 특히 ②와 ⑤가 그렇다. 어린 아이들이야 한 살 더 먹는 것이 자랑스럽겠지만 황혼기에 접어들면 원단(元旦)이 반갑지 않다. ‘인생 70 고래희(古來稀)’가 옛 말이 되고 100세 시대가 열렸다 해도 크게 달라질 것 없다. 설날 아침에 먹는 떡국 자체가 가래떡처럼 길게, 오래 살라는 음식이다.

어느 언론매체에 누가 물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느냐고…. 전문가의 답은 이렇다. ① 20세 청년에게는 1년이 20분의 1로, 60세 노년에게는 60분의 1로 느껴진다. ② 나이가 들면 뇌세포를 비롯한 모든 기능이 저하돼 외부변화를 빠르게 느낀다. ③ 늙으면 젊은 시절에 비해 새로운 경험이 적어 특별한 기억이 없다보니 빨리 지나간 것처럼 여긴다.

여기서 ③에 유독 주목한다. 사람의 기억 속에서 시간의 길이는 정보의 양에 비례한다고 말한 사람이 독일 학자 슈테판 클라인이다. 모든 것이 신기하게만 느껴지는 어린 시절엔 받아들이는 정보가 많아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나이를 먹을수록 별로 새로울 게 없어지니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다는 이야기다.

정말 그럴까? 과학자들이 여러 연령층을 대상으로 물었더니 꼭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아냈다고 한다. 시간이 화살처럼 빨리 간다고 느끼는 이유는 대부분 시간적 압박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해진 시간 안에 주어진 과제를 다 하지 못했을 때 조바심이 난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될수록 시간은 더 빨리 가는 것 같다. 현대인들의 조급증이 시간을 더 빨리 흐르게 만든다. 이 말을 뒤집으면 노년에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한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시간에 쫓기면서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니까.

또 시간을 길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급적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다. 매사에 호기심을 갖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다. 영국 심리학 교수 스티브 테일러가 여행자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도 이를 잘 말해준다. 절반 이상이 여행지에서의 시간이 집에 있을 때보다 느리게 가는 것 같았다고 답했다. 새로운 경험 때문이다. 특히 여행지에서의 첫날이 느리게, 마지막 날이 빨리 갔다고 느낀 것도 이를 입증한다. 여행지에 익숙해질수록 새로운 경험이 적어지니까 당연하다. 새로운 경험을 여행에서만 찾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지적인 호기심으로 독서 여행을 한다거나 마음에 맞는 친구와 대화하는 것도 권장할 일이다.

얼마 전 모 신문사 논설위원이 옛 스승을 찾아가 “요새 어떻게 소일(消日)하십니까?”하고 문안 인사 드렸더니 그 스승이 말도 할 줄 모른다고 핀잔을 주어 부끄러웠다는 글을 본 적이 있다. 스승은 “소일이라니? 그렇게 소비할 시간이 어디 있나? 앞으로는 석음(惜陰)이라고 하게.”하였다는 고백이다. 세월이 헛되이 지나감을 애석히 여기면서 촌음이라도 아껴 쓰는데 무슨 말이냐는 질책이다.

나도 몇 년 전 인터넷에 올라온 95세 노인의 글을 보며 크게 부끄러웠다. 요약하면 이렇다. “나는 젊은 시절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65세에 당당히 은퇴했다.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에 후회의 눈물을 많이 흘렸다. 퇴직 후 나는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생은 덤이다’는 생각으로 고통 없이 죽을 날만 기다렸다. 30년은 내 나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스스로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 것이 큰 잘못이었다. 이제 나는 어학공부를 시작하려 한다. 10년 후 맞게 될 105번째 생일 때, 왜 95살에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다.”

